

**회비납부** - 감사합니다

**[단체회원]**

(주)삼건사, (주)도화엔지니어링, (주)항도엔지니어링, (합)보령 환경,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개인회원]**

노용기, 정해택, 최재학(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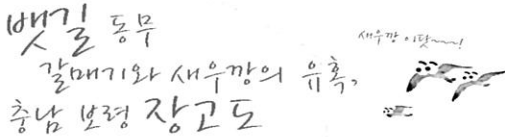
**살아 생전에 꼭 가봐야 할 자전거 여행 52코스**



제 목 자전거길 따라 떠나는 우리나라 해안여행  
 가 격 25,000원  
 저 자 노림수산업부·한국어촌어향협회  
 펴낸날 2010년 5월 10일  
 판 형 4×6배판 변형(188×230) | 올컬러  
 분 량 424쪽  
 분 야 국내도서 > 여행 > 국내여행 > 전국  
 I S B N 978-89-6000-870-0 13980  
**넥서스BOOKS**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4-2 전화 330-5500(대) | 팩스 330-5555  
 (내용 문의) 편집부 양정희 | yjh@nexusbook.com | 330-5516

7월의 크린오션호 및 어항청소선 운항계획					
선 명	기 간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8~22	선유도, 식도, 위도, 곰소, 격포	백남춘	011-247-5592	
어항 902호	1~6 15~20	원평 고하도, 목포연안	이일구	010-7175-5590	
어항 903호	1~15	녹동, 시산	조동식	011-230-5591	
어항 904호	3~15	사동, 척치, 도장	황원배	011-232-5596	
어항 905호	2~19	능양, 곤리, 삼덕, 학림, 이운	하용만	011-247-5593	
어항 906호	1~14	읍천, 가곡, 감포	김성훈	011-247-5594	
어항 907호	4~18	임평, 장호, 초곡, 덕산, 대진	최일선	011-243-5597	
크린오션1호	2~19	안흥, 모항, 만리포, 천리포, 어은돌	김용익	011-243-5590	
크린오션2호	2~19	미조, 옥지, 매물도, 연화, 대대포	박주종	010-6393-5596	

**어촌 View Point 100 ⑥ 충남 보령 장고도**



**갈매기와 어울리는 관광객 ▶**

- CANON EOS 5D MARK II
- 초점거리 16mm
- 7월 24일 Am 10:30
- 촬영모드 TV/IOS160
- 셔터스피드 1/400초
- 조리개 F9
- 화이트밸런스 Auto



차령산맥 한 자락이 서쪽으로 기울어지다가 서해로 빠져들 때 꼬리인 듯 만들어 놓은 섬이라는 설명이다. 귀항 중이던 어업인들이 먼 바다에서 눈여겨보니 딱 장고(長鼓)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섬 이름, 장고도. 이웃 섬 고대도와 더불어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들어있으니 풍경 좋은 것은 공인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10여 년 전까지 대천항과 장고도를 오갔던 해묵은 '새마을22호'가 바다에서 은퇴하고 대신 신한고속훼리호가 오가니 뱃길이 한결 편해졌다. 첫 기차지 삼시도를 거친 뒤 장고도까지 가는 뱃길은 1시간 남짓. 섬 여행에 적당한 시간이다. 대부분의 선객이 더위를 피해 선실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고 있다. 바람 때문만은 아니다. 출항할 때부터 배를 따라온 갈매기 떼가 서슴없이 사람 곁으로 날아든다. 손끝에 쥐 '새우깡' 때문이다. 광각렌즈를 장착하고 한 관광객 손가락 끝에 핀트를 맞췄다. 셔터스피드는 갈매기 비행속도를 고려해 1/400초로 조정, ISO를 160으로 올리니 조리개는 F9가 나온다. 찬스에 맞춰 연속 촬영. 간혹 지루해진 관광객들이 봉투 속 과자를 모두 털어 주기도 하는데, 갈매기의 생태에는 나쁠지언정, 촬영대상으로는 이 모습도 좋다.

여기도 좋아요! 여름방문 때는 한국어촌어향협회 주관 '재외 한국대학생 및 외국인 대학생 어촌체험'팀과 동행, 염전체험과 야간 지인망 체험, 낚시 체험 등을 따라 다니며 촬영을 했으니 좋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튿날, 갯벌을 걸어 명장섬까지 가니 훗날만한 풍경이 여러 곳, 참여 학생들이 설 사이 없이 셔터를 눌러댈 정도로 섬 곳곳이 아름답다.

신나게 즐겁게! 한여름 피서객이라면 제각기 알아서 해수욕장으로 몰려가겠지만, 봄가를 관광객들은 다르다. 코끼리 바위까지 둘러본 관광객들은 썰물 때 맞춰 명장섬 주변 갯벌에 널리다시피 한 바지락과 맛조개 잡이에 시간가는 줄 몰라 한다. 운만 좋으면 눈먼 낚지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장고도의 여성어촌계장의 설명이다. 낚시대를 들고 간 관광객들이라면 더욱 심심할 틈이 없다. 손맛을 볼만한 토박이 어종이 많아서다.

배꼽시계 꼬르륵! 봄여름이면 자연산 회가 인기를 끌고,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개불회가 손님상 위에서 불타나게 없어진다. 섬 어업인들이 갯벌에서 캐낸 개불은 쫄깃하면서도 단맛이 난다. 몸에도 좋은데, 장고도 사람들은 개불에 혈전 용해성분을 내포 고혈압환자가 먹으면 금삼청화라고 자랑한다. 바다사랑민박에 부탁하면 맛 볼 수 있다.

쉬어 가고 싶을때! 피서철에는 여러 집에서 민박을 할 수 있지만, 겨울여행이라면 미나민박(<http://www.mina-house.com> 041-932-4980)과 바다사랑민박(041-931-3867)만 문을 연다고 한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민박집에 부탁을 해야 한다.



▲ 장고도 포구의 일몰



▲ 협회 주관 외국인체험행사